

---

# 학습용 이중 언어 사전의 편찬 현황과 과제

정영국 ·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영어교재개발학과

---

## 1. 서론

이 글은 한국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이중 언어 사전의 현황과 개발 방향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다양한 언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지만 아직 이들을 위해 개발된 한국어 이중 언어 사전은 거의 없다. 이중 언어 사전이 드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용 단어들 사전이 처음 출간된 것도 불과 몇 년 전의 일이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사전』(서상규 외, 2006)이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을 위한 첫 단어들 사전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사전의 현황에 관해 살펴본 배주채(2009)와 강현화·최진희(2009)의 연구에 의하면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사전들은 대부분 단어들 사전이며, 이중 언어로 된 일부 사전은 엄밀한 의미에서 사전이라기보다는 어휘 학습을 위한 교재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아직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용 이중 언어 사전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형편이므로 이 글에서는 영어 학습용 사전을 중심으로 이중 언어 사전의 편찬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어 학습용 이중 언어 사전 개발에 도움이 될 만한 사항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알아보고자 한다.

## 2. 사전의 종류

### 2.1. 일반 언어 사전과 학습자 사전

사전의 종류를 나누는 데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다. 그 중 사용 목적을 기준으로 보면 일반 언어 사전과 학습자 사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들 사전 간에는 표제어의 수, 문법 정보, 용례 등에서 큰 차이가 난다. 일반 언어 사전의 표제어 수는 대개 몇십만에 이르지만 학습자 사전은 많아야 수만 개 정도이다. 대표적인 영영 학습자 사전인 *Oxford Advanced Learner's Dictionary*(2000)나 *Longman Dictionary of Contemporary English*(2003)의 표제어는 5만 단어가 채 되지 않는다(조미옥, 2004). 이들 사전은 상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것들이므로 학습자 사전 중에서는 표제어 수가 많은 편이다. 초급이나 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의 표제어 수는 적게는 몇 천 단어에서 많게는 2만 단어 정도이다. 이것은 한국어 학습 사전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유현경·남길임(2008)에 따르면 표제어와 부표제어를 합쳐서 『연세한국어사전』에는 53,354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사전』에는 10,757개가 등재되어 있다. 반면 『표준한국어사전』에는 약 51만 개의 표제어 및 부표제어가 실려 있다고 한다.

영영사전의 경우 모국어 화자를 위한 일반 언어 사전에서는 대개 문법 정보를 다루지 않는다. 이런 사전에서는 표제어의 품사를 표시하기는 하되 동사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에 대한 정보는 주지 않는다. 명사의 경우에도 가산명사인지 불가산 명사인지 구분하지 않는다. 용례의 경우도 차이가 있다. 일반 언어 사전에서는 표제어의 쓰임을 보여주는 용례를 거의 제시하지 않지만 학습자 사전에서는 다양한 용례를 제시한다(정영국,

2008).

## 2.2. 학습자 사전

학습자 사전은 사전에 사용된 언어의 수에 따라 단일어 사전과 이중 언어 사전으로 나눌 수 있다. 단일어 사전은 영영사전과 같이 학습 대상 언어(예컨대 영어)를 그 언어(즉, 영어)로 뜻풀이를 한 사전이고, 이중 언어 사전은 영한사전이나 한영사전처럼 학습자의 모국어와 학습 대상 언어를 함께 사용한 사전이다. 두 가지 언어로 이루어진 이중 언어 사전이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4종의 사전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컨대 한국어와 영어라는 한 쌍의 언어로 된 사전의 경우라면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을 위한 표현용 사전과 이해용 사전이 있어야 하고,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을 위한 표현용 사전과 이해용 사전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표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이해용 사전과 표현용 사전

사용자 사전 종류	영국/미국 사람	한국 사람
이해용 사전	한영사전	영한사전
표현용 사전	영한사전	한영사전

위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영사전'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인을 위해서 편찬된 것은 영어로 하는 표현 활동을 돕기 위한 표현용 사전이고, 영미인을 위한 것은 한국어 표제어의 이해를 돕는 이해용 사전이 된다. 표현용 사전과 이해용 사전은 사전 편찬 목적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표현용 사전인 한영사전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한국인이 특정 한국어 낱말

또는 표현에 해당하는 영어 대응어나 표현을 찾을 때 사용하므로 목표어인 영어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제시해 주어야 한다. 반면 이해용 사전인 한영사전은 표제어인 한국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영미인들이 사용하므로 표제어 자체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제시해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 전쟁이 끝나던 1953년부터 미국 예일대학에서 미국 사람들의 한국어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한미대사전』(Martin 외, 1968)(이해용 사전)과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의 표현 활동을 돕기 위해 만든 『능력 한영사전』(2006)(표현용 사전)에 제시된 ‘고객’이란 항목을 비교해 보자.

**고객**(顧客) **kokayk**, *n.* a customer, a buyer, a client, a patron.

『한미대사전』

**고객**(顧客) (상점 등의) customer; (호텔 등의) guest; (단골) ㄱ patron;

(번호사·은행 등의) client; (집합적) clientele

『능력 한영사전』

미국인을 위한 이해용 사전인 『한미대사전』에서는 표제어 ‘고객’의 발음을 로마자로 표기하고 표제어의 품사가 명사라는 것도 알려준다. 그러나 표제어의 대응어로 제시된 4개의 영어 단어들에 대해서는 이들 간의 뜻이나 쓰임의 차이에 대해 어떠한 정보도 제시하지 않는다. 이는 이 사전의 주된 사용자가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이므로 각 대응어의 의미와 쓰임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있다고 상정하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인을 위한 표현용 사전인 『능력 한영사전』에는 표제어의 발음이나 품사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는 반면 영어 대응어들 간의 차이를 보여주는 정보가 자세히 나와 있다. 즉, 각 대응어가 어떤 상황에서의 ‘고객’을 뜻하는지를 구분해 주고 있을 뿐 아니라 patron이 격식을 차린 상황에서 주로 쓰인다는 것과 같은 사용역(register)에 대한 정보도 제시하고 있다.

아직 한국어 표기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위한 한영사전도 있는데

*NTC's Compact Korean and English Dictionary*(Jones & Rhie, 1995)가 그러하다. 이 사전은 영한사전과 한영사전이 한 권에 합본된 것으로 표제어에 해당하는 대응어만 간략하게 제시한다. 한영사전의 표제어 배열은 한글 자모순이 아니라 로마자로 표기된 표제어의 알파벳순으로 되어 있다. 표제어의 표기와 배열순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kaet'an 개탄  
 kaetka 갯가  
 kaet'ong 개통  
 kaettongbölle 개똥벌레  
 kaeul 개울  
 kaeunhada 개운하다  
 kaeyo 개요  
 kage 가게  
 kagok 각오

(*NTC's Compact Korean and English Dictionary*, Jones & Rhie, 1995)

이처럼 ‘한영사전’이라고 하더라도 주된 사용자가 누구냐에 따라 사용 목적이 표현용과 이해용으로 나뉘게 되고 이에 따라 제시되는 정보의 종류나 제시 방식도 달라진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우리나라 시중에 나와 있는 영어, 프랑스 어, 독일어, 일본어, 중국어 등 주요 외국어로 된 ‘한국어-외국어’ 이중 언어 사전들은 한국어를 배우는 영미인이나 프랑스인 등을 위한 이해용 사전이라기보다는 해당 외국어를 배우는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표현용 사전이다. 그러므로 한국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사람들을 위한 이중 언어 사전은 아직은 어떤 외국어로 된 것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인 셈이다.

### 2.3. 다국어 사전 (?)

최근 한국어 학습용 이중 언어 사전 개발과 관련하여 ‘다국어 사전’이란 말이 자주 쓰이고 있다. 그런데 이 ‘다국어’란 낱말이 뜻하는 바가 분명하지 않다. ‘다국어 사전’에서 ‘다국어’가 ‘다+국어’로 된 합성어인지, ‘다국+어’로 된 합성어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 우선 ‘국어’의 의미를 살펴 보기 위해 국립국어원에서 편찬한 『표준 국어 대사전』을 펼쳐보면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뜻이 나온다.

#### 국어(國語)

- ① 한 나라의 국민이 쓰는 말
- ② 우리나라의 언어

『표준 국어 대사전』

‘다국어’의 ‘국어’는 이 두 가지 뜻 중에서 첫째 뜻으로 쓰였을 것이다. ‘다국어’를 ‘다+국어’의 조어로 본다면 한 나라에서 여러 언어를 국어로 쓰는 경우를 뜻하는 것이 된다. 영어와 불어를 공용어로 하는 캐나다와 같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다국어’를 ‘다국+어’의 조어로 본다면 여러 나라에서 쓰이는 어느 한 언어를 이르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 언어가 어느 한 국가에서만 사용되는 것도 아니고, 한 국가에서 반드시 하나의 언어만 사용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보면 ‘다국어’란 말은 어떻게 보더라도 한국어 학습용 이중 언어 사전과 관련지어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해 보인다.

현재 국립국어원에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다양한 언어권의 외국인 학습자들을 위한 한국어 학습 사전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다국어 사전’이란 말보다 더 적절한 용어를 가려서 쓸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국어-베트남 어 사전’, ‘한국어-몽골 어 사전’, ‘한국어-타이어

사전' 등과 같이 한국어를 기준으로 해서 다양한 언어를 목표어로 하는 사전을 염두에 둔다면 이는 다종의 이중 언어 사전(bilingual dictionary)을 일컫는다고 하겠다. 그런데 이러한 사전들을 한국어로 된 단일어 사전을 번역해서 만든다고 하면 '이중 언어화 사전'(bilingualised dictionary)이라고 칭하는 것이 더 적절할 듯하다.

### 3. 이중 언어(화) 사전과 다중 언어 사전

#### 3.1. 이중 언어 사전

1990년 초반까지만 해도 효과적인 외국어 학습을 위해서는 학습 대상 언어로만 이루어진 단일어 사전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들 했다. 즉, 영어를 배우려면 영영사전처럼 영어 표제어에 대해 영어로 뜻풀이를 해놓은 사전을 사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학습자들이 실제로 사전을 사용하는 과정을 관찰하거나, 사전을 통한 학습 효과를 측정하고 학습자들의 사전 사용 선호도를 조사하는 등의 다양한 연구들이 이뤄지면서 영영사전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기 시작했다.

단일어 사전의 뜻풀이를 보고 표제어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각 뜻풀이에 사용된 낱말들이 문맥 속에서 갖는 다양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영영 학습자 사전들은 뜻풀이에 대개 2,000단어에서 3,000단어 정도를 사용한다. 그러므로 이 사전들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사용자가 적어도 이 정도의 단어는 알고 있어야 한다. 2,000~3,000단어가 어느 정도의 학습량인가는 우리나라 교육 과정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현재 초등학교 3학년부터 정규 과목으로 영어를 배워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이수하는 어휘 수가 1,800개 정도이고,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이수하는 모든 어휘 수가 3,000개 정도이다. 이렇게 보면 적어도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

오는 어휘들은 거의 완전 학습을 한 사용자라야 영영 학습자 사전을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어 학습용 단일어 사전인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사전』(서상규 외, 2006)도 쉬운 말로 뜻을 풀이했다고 하지만 이 사전에 제시된 ‘중요 단어 목록(2,975개)’에 들지 않는 단어들이 뜻풀이에 사용된 경우가 상당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전의 표제어에조차 오르지 않은 단어들도 뜻풀이에 나타난다(정영국, 2009).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단일어 사전을 이용하기가 얼마나 어려울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많은 외국어교육 학자들은 아직도 영어 학습에 영어로 된 단일어 사전을 사용할 것을 타당한 근거도 없이 주장하면서, 학습자의 모국어로 뜻을 풀이한 이중 언어 사전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저명한 어휘 학자인 네이션(Nation, 2008) 교수는 학습자의 어휘 수준이 적어도 2,000단어에 이르기 전까지는 단일어 사전보다는 이중 언어 사전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솔직히 말한다.

외국어 학습 사전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 결과와 점진적인 시각 변화를 감안하면 한국어를 외국어로 학습하는 데도 한국어로 뜻을 풀이한 한국어 단일어 사전보다는 학습자의 모국어로 뜻을 풀이한 이중 언어 사전을 사용하는 것이 학습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외에 나와 있는 한국어 사전 및 어휘 교재 14종을 분석한 강현화·최진희(2009)에 의하면 이들 중 대부분이 영어, 중국어 등으로 된 이중 언어 교재라고 한다. 이것은 단일어로 된 사전이나 교재보다는 학습자의 모국어로 된 교재가 더 선호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사전이나 교재를 개발하는 입장에서 보면 단일어 사전이나 교재는 어떤 언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용자든 사용할 수 있지만, 이중 언어로 된 것은 각 언어마다 달리 마련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기는 하다.



### 3.2. 이중 언어화 사전

초급 또는 중급 외국어 학습자에게는 단일어 사전보다 이중 언어 사전이 더 효과적이라고는 하지만 이중 언어 사전을 개발하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베트남 어 사전’을 개발한다고 할 때 저본으로 삼을 수 있는 한국어 단일어 사전이 없다면 한국어 표제어 선정에서부터 뜻갈래 나누기, 용례 수집 등까지의 제반 과정을 모두 직접 처리하면서 한국어 자료를 만든 후 이들 각각에 대해 베트남 어 대응어를 제시하는 단계로 들어가야 한다. 이런 방식은 1800년대 말 한국어 사전이 제대로 존재하지 않았을 때 서양 선교사들이 한영사전을 만들 때나 썼을 방식이다. 요즘에는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이중 언어 사전을 개발하기보다는 저본으로 삼을 만한 단일어 사전을 선정하여 이것을 해당 외국어로 번역하는 이중 언어화 사전을 개발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면 한국어 학습용 이중 언어화 사전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다양한 외국어로 이중 언어화하는 데 기반이 될 한국어 단일어 학습 사전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어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 기관이 주도하여 한국어 단일어 사전을 개발한 뒤 이를 여러 외국어로 번역해서 이중 언어화 사전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저작권을 개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3.3. 다중 언어 사전

앞에서 언급한 ‘다국어 사전’이라는 말은 영어의 ‘multilingual dictionary’를 지칭하는 것인 듯하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multilingual dictionary’는 우리말로 ‘다중 언어 사전’ 또는 ‘다언어 사전’이라고 해야 할 텐데, 2개 언어를 사용한 사전을 가리켜 ‘이중 언어 사전’<sup>1)</sup>이라고 한

---

1) ‘2어 사전’, ‘두말 사전’, ‘두 언어 사전’ 등의 용어가 사용되지만 ‘이중 언어 사전’이

다면 이와 맥을 같이 하여 ‘다중 언어 사전’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다중 언어 사전이란 2개 또는 그 이상의 언어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국가나 지역에서 사용하기 위한 사전이다. 다중 언어 사전은 주로 소수 민족이 사용하는 언어를 보전하기 위해서나 두 개 이상의 언어를 공유하는 사회에서 필요하다. 예를 들어, 동독 중부 지방에 있는 소르비아(Sorbja)에서는 약 20,000~25,000명 사이의 인구가 소르비아 어와 독일어를 함께 사용하는데, 누구도 소르비아 어만을 사용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이런 사람들을 위한 영어 사전을 만들 때는 소르비아 어-독일어-영어 또는 영어-독일어-소르비아 어로 된 삼중 언어 사전을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한다(Schaarschmidt, 2001, 2003).

다중 언어 사전을 필요로 하는 지역의 또 다른 예로 홍콩을 들 수 있다. 홍콩은 오랫동안 영국령으로 있으면서 영어를 사용했지만 중국어도 함께 사용해 왔다. 그런데 중국어로는 베이징 어와 광둥 어가 함께 쓰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홍콩은 문자는 영어와 한자 두 가지를, 말은 영어, 베이징 어, 광둥 어 세 가지를 사용하는 다중 언어 사용 지역이다. 그러니 홍콩에서는 이들 세 가지 언어를 모두 다루는 다중 언어 사전이 필요할 수 있다(Lam, 2004; Lam & McArthur, 2004).

다중 언어 사전은 적어도 2가지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 사용 집단에서 제3의 언어를 학습할 때 사용하는 사전인 셈이다. 한국어는 ‘한국어-외국어1-외국어2’와 같은 형태의 다중 언어 사전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사전에서는 ‘다국어 사전’ 또는 ‘다중 언어 사전’과 같은 개념이나 용어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겠다.

---

널리 쓰이는 편이다.

## 4. 영어 이중 언어화 사전 개발 사례

영어 이중 언어화 사전의 경우 국내에서는 1980년대 초에 '옥스퍼드 영영사전'이 '혼비 영영한 사전'으로 개발, 출시된 이후로 한동안 이런 움직임이 뜸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에 영영 학습자 사전을 기반으로 한 이중 언어화 사전 개발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단일어 사전보다는 이중 언어(화) 사전이 학습에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들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이런 사전으로 초급이나 중급 학습자를 위한 것으로는 『롱맨 영영한사전』(1994/2005), 『시사 엘리트 영영한사전』(2001), 『두산동아 Prime 영영한사전』(2002), 『옥스퍼드 워드파워 영영한사전』(2005)이 있으며, 고급 학습자용으로는 『콜린스 코빌드 영영한사전』(2008)과 『옥스포드 영한사전』(2008)이 있다.

단일어 사전을 번역하여 이중 언어화 사전으로 개발할 때는 단일어 사전의 뜻풀이 부분 번역 여부와 대응어 제시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 (1) 뜻풀이 자체를 번역하고, 그 뒤에 대응어를 덧붙이는 경우
- (2) 뜻풀이는 원문 그대로 두고 대응어를 제시하는 경우
- (3) 뜻풀이를 없애고 대응어를 제시하는 경우

첫째 방식의 이중 언어화 사전으로는 『롱맨 영영한사전』(2005)과 『옥스퍼드 워드파워 영영한사전』(2005)이 있다. 이들 사전은 원래 영어로 제시된 뜻풀이를 그대로 둔 채 뜻풀이 자체를 우리말로 번역하고 또 우리말로 된 대응어도 제시한다.

둘째 방식의 사전으로는 『두산동아 Prime 영영한사전』(2002)과 『코빌드 영영한사전』(2008)이 있다. 영어로 된 뜻풀이는 우리말 번역 없이 원문 그대로 두고 각 뜻에 해당하는 우리말 대응어만 제시한다. 원래 영영

사전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한글 대응어를 추가로 제시하는 것이다.

셋째 방식은 영어로 된 뜻풀이는 삭제하고 그 대신에 우리말 대응어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형태상으로 보면 영한사전이 된다. 『옥스포드 영한사전』(2008)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중 언어화 사전에서 용례는 번역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시사 엘리트 영영한사전』(2001)은 용례를 번역하지 않았다. 이 사전에서 제시하는 정보는 단일어 사전인 영영사전과 유사하며 사용자가 영어로 된 뜻풀이를 읽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경우에 우리말로 된 대응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만 했다.

## 5. 한국어 이중 언어(화) 사전 개발 과제

한국어로 된 단일어 사전을 토대로 이중 언어화 사전을 만들 때 도움이 될 만한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자.

### 5.1. 기본 사전 선정

이중 언어화 사전을 개발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어떤 사전을 저본으로 해서 번역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사전 선정 시의 중요한 기준은 표제어의 수이다. 표제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언어 학습에 필요한 어법, 용법, 문화 요소, 용례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쉽다. 그러므로 표제어 수는 많지 않더라도 한국어 학습에 중요한 기본 단어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다룬 단일어 사전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초급이나 중급 학습자를 위한 사전일 경우 표제어 수가 1만에서 2만 정도가 적절할 것이다. 물론 고급 학습자를 위한 사전인 경우에는 5만 개 정도의 표제어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학습자 수준의 분포를 고려하면 초·중급 학습자용 사전을 먼저 개발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 5.2. 대상 외국어 선정

한국어 이중 언어화 사전을 개발할 대상 외국어를 선정할 때 간과하기 쉬운 것이 주요 외국어에 대한 고려이다. 자칫 잘못하면 영어, 일본어, 중국어와 같은 주요 외국어로는 이미 여러 가지 이중 언어 사전이 개발되어 있다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이미 앞에서 지적했듯이 시중에 나와 있는 이들 사전은 한국어를 학습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외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한국인들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런 사전은 한국어 표제어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해주지 못한다.

한국어 사전을 이중 언어화 사전으로 개발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언어가 영어라고 본다. 한국어를 배우려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영어에 익숙해 있을 것이므로 한-영 이중 언어화 사전은 폭넓은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어 기본 사전을 다양한 외국어로 된 이중 언어화 사전으로 개발할 때도 이 '한국어-영어 사전'이 먼저 번역되어 있다면 다른 언어용 이중 언어화 사전 번역자들이 이 사전을 참조해 가면서 작업을 하기가 용이할 것이다.

## 5.3. 사전 번역자 선정

이중 언어로 된 외국어 사전을 개발하는 것이 얼마나 지난한 작업인가는 영한사전의 경우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 땅에서 영한사전이 출간된 지 120여 년이 되었지만, 영영사전을 토대로 하지 않고 일본 영일사전을 번역한다는 비판이 줄곧 제기되었다. 물론 영영사전을 토대로 영영한사전을 개발한 것이 몇 가지 있긴 했지만 영영사전을 바로 번역한 영한사전이 나온 것은 『옥스포드 영한사전』(2008)이 처음이다.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의 숫자나 과도할 정도의 영어 학습 열풍을 생

각하면 믿기 어려운 일이다. 사정이 이렇게 된 주된 원인은 사전을 출판하는 국내 출판사의 의식 부족이라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작업을 할 만큼 전문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것도 무시 못 할 이유로 작용한 것이 사실이다.

이중 언어(화) 사전을 개발할 때 부딪치는 가장 큰 난관은 유능한 번역자를 찾는 일이다. 이때 유능한 번역자란 사전 편찬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 두 언어 모두에 능통한 사람을 말한다. '한국어-외국어 사전'의 경우라면 기준어[한국어]에 대해서는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주로 필요하고, 목표어[외국어]에 대해서는 글로 표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면서 한국어에 능통한 전문가들로 번역진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만약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로 번역진을 구성한다면 이는 마치 영한사전을 개발하면서 영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 영영사전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면 추후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이 아무리 검토를 한다고 해도 질 높은 번역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어 사전을 외국어로 번역하려면 먼저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면서 한국어에 능통한 번역자를 찾는 일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들을 한국어에 능통한 외국인 전문가들로 육성해 나가야 지속적인 한국어 이중 언어 사전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5.4. 대응어 수의 제한

이중 언어 사전의 대응어 제시 원칙은 사전의 사용 목적에 따라 정해야 한다.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전문 번역가를 위한 영한사전에서는 문맥에 따라 다르게 표현될 수 있는 다양한 대응어를 가급적이면 상세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학습용 영한사전에서는 표제어의 뜻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핵심적인 대응어를 선별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

다. 이는 종이 사전의 태생적 한계인 공간적 제약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대응어 수가 많으면 학습자의 혼란을 가중시켜 학습 효과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이희재(2009, 346)는 1900년대 초에 서양 선교사가 만든 영한사전에는 prince의 대응어로 ‘부마, 위’가 들어 있었고, princess에는 ‘옹주’가 들어 있었는데 요즘의 영한사전에서는 이런 대응어들을 찾아볼 수 없어서 아쉽다고 했다. 이재호(2005, 36)도 영한사전에 adult의 대응어로 ‘어른’, ‘성인’은 있고 ‘어르신’, ‘어르신네’는 없으며, age에 ‘연령’은 있고 ‘연세(年歲)’, ‘춘추(春秋)’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비판이 타당한가를 논하려면 해당 사전의 주된 사용 목적이 무엇인가를 먼저 따져 봐야 한다. 이희재(2009)나 이재호(2005)의 비판이 전문 번역가를 위한 영한사전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타당한 비판이 될 수 있지만 학습자용 영한사전에 대해 한 것이라면 적절한 비판이라 할 수 없다. 거듭 말하거니와 어떤 영한사전이 영어를 우리말로 옮기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번역가를 위한 것이라면 그 표제어의 의미를 문맥에 적절하게 옮길 수 있는 다양한 우리말 대응어를 가능하면 많이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영어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영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전이라면 그 표제어의 뜻으로 여러 문맥에서 두루 쓰일 수 있는 평이한 우리말 대응어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두 개 이상의 대응어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description의 대응어로 ‘기술’만 제시하면 이것이 우리말에서 다의어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 쉽게 파악하기 힘들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기술, 묘사’라고 두 개의 대응어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어 사전을 이중 언어화 사전으로 개발할 때도 전문 번역가를 위한 사전이 아니라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사전을 개발한다는 취지를 잘 살려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제시하는 대응어의 수효를 제한하여 한국어 표제어의 뜻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대응어를 최소로 제시하는 방침을 세울

필요가 있다.

## 5.5. 대응어 풀이 방식

이중 언어화 사전 개발 때 뜻풀이 번역 문제는 사전의 주된 사용자가 누구이며 주된 사용 목적이 무엇인지를 고려해서 풀어야 한다. 특히 한자로 이루어진 우리말 표제어의 경우 각 글자의 뜻을 자구적으로 전달할 것인지, 아니면 표제어의 의미에 가장 가까운 외국어의 대응어를 찾아 제시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한영사전을 예로 든다면, 표제어 ‘모골’에 ‘모골(毛骨)이 송연(悚然)하다’는 표현이 나온다. 이를 각 글자의 뜻을 자구적으로 번역하면 ‘be frightened from the tips of one’s hair to the marrow of one’s very bones’가 될 것이다. 이것은 한국어 표현의 뜻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실제 이렇게 제시하는 한영사전도 상당수 있다. 한국어의 낱말이나 표현을 구성하는 글자의 뜻을 이해하는 데는 이런 방법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인이 영어로 번역하거나 말을 할 때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처럼 장황하게 설명을 늘어놓으면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영어 표현을 위한 한영사전이라면 우리말의 이 표현이 나타내는 뜻에 가장 가까운 영어 표현을 찾아 그것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모골(毛骨)이 송연(悚然)하다’는 표현이 나타내는 뜻에 가장 가까운 영어 표현은 ‘make one’s hair stand on end’이다. 일부 한영사전은 이것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렇게 하면 한국어의 표현을 구성하는 각 요소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영어 표현을 제시한 것이 된다.

한국어 학습용 이중 언어화 사전을 개발할 때는 위와 같은 두 가지 대응어 제시 방식 중에서 어느 한 방식만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두 가지 방식 모두를 택할 것인지를 미리 정해야 한다. 만약 두 가지 방식 모두를 쓰기로 한다면 어느 것이 뜻의 설명에 해당하고, 어느 것이 목표어의 대



응 표현에 해당하는지를 알려줄 수 있도록 그 제시 순서도 일관성 있게 해야 할 것이다.

## 6. 결론

이 글에서는 한국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사람들을 위한 한국어 학습 사전 편찬과 관련하여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한국어 교육을 위해 단일어 사전과 이중 언어 사전 중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일까 하는 점은 1990년 이후의 영어 사전 사용 관련 연구들에 비춰볼 때 초급이나 중급 학습자들에게는 자신의 모국어를 사용하는 이중 언어(화) 사전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런 한국어 학습용 이중 언어(화) 사전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외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단일어 사전 개발이나 선정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다양한 외국어로 된 이중 언어(화) 사전을 개발하는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중 언어(화) 사전을 개발할 때는 학습자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이에 맞게 표제어 선정, 대응어의 수, 대응어 제시 방식 등을 신중하게 정해야 할 것이다. 이중 언어(화) 사전을 개발할 때 무엇보다 큰 난관은 훌륭한 번역자를 선정하는 일이다. 그들이 두 언어에 대해 능숙할 뿐만 아니라 사전의 기능 및 사전 텍스트의 성격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머지않아 세계 곳곳의 외국인들이 한국어 학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 언어로 된 이중 언어(화) 사전들이 속속 출간되기를 기대해 본다.

한국어 학습용 이중 언어(화) 사전이 여러 언어로 개발되면 이를 함께 모은 웹 사전을 구축하여 전 세계의 한국어 학습자들이 인터넷으로 활용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로 영어의 경우 이와 유사한 웹 사전으로 옥스퍼드 대학 출판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옥스퍼드 영어사전』이 있다 ([www.oxfordlanguage-dictionaries.com](http://www.oxfordlanguage-dictionaries.com)). 이 사전은 현재 옥스퍼드 대학

출판부에서 개발한 영어와 스페인 어, 불어, 독일어, 이탈리아 어, 러시아 어, 중국어의 6개 언어로 된 이중 언어 사전을 하나의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영어-불어, 불어-영어처럼 양 방향 검색이 가능하다. 사용자들은 이들 언어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어떤 언어라도 선택해서 검색할 수 있다. 이 사전은 세계 저명 기관이나 대학 도서관 등이 회원으로 가입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런 세계적인 사전 사이트에도 언젠가는 영어와 한국어로 된 이중 언어 사전이 탑재되기를 기대해 본다. 그러나 이런 성과는 국내의 뜻있는 출판사나 국가 기관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거나 참여해야만 가능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강현화·최진희(2009). '언어 교육용 어휘 사전 분석 연구: 국외 및 국내의 어휘 교육용 사전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전학』 13, 한국사전학회, 48-83.
- 배주채(2009).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사전 개관', 한국사전학회 제15차 학술대회 자료집.
- 유현경·남길임(2008). 『한국어 사전 편찬학 개론』, 서울: 역락.
- 이재호(2005). 『영한사전 비판』, 서울: 궁리.
- 이희재(2009). 『번역의 탄생』, 서울: 교양인.
- 정영국(2008). '교육 영문법과 어휘 문법: 영영 사전의 문법 정보를 중심으로', 양현권·정영국(편) 『교육 영문법의 이해』, 67-90, 서울: 한국문화사.
- 정영국(2009).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사전의 발전 방향', 한국사전학회 제15차 학술대회 자료집.
- 조미옥(2004). '영영 학습자 사전 비교 분석', 『한국사전학』 3, 175-202.
- Lam, J. & T. McArthur(2004). Could there be a dictionary tailor-made

- for Hong Kong: Both biliterate and trilingual? In S.W. Chan (Ed.) *Translation and bilingual dictionaries*, (Lexicographica Series Maior 119). Tübingen: M. Niemeyer, 119-128.
- Lam, J. (2004). The kind of dictionary Chinese students need in Hong Kong: A biliterate and trilingual dictionary. *The Hong Kong Linguist*, 25, 89-93.
- Nation, I.S.P.(2008). *Teaching vocabulary: Strategies and techniques*. Boston: Heinle Cengage Learning.
- Schaarschmidt, G. (2001). Trilingual dictionaries: The case for and against. *Studies in Lexicography* (Yonsei University) 11(1), 37-47.
- Schaarschmidt, G. (2003). Trilingual lexicography: Theoretical and practical considerations (Towards an Upper Sorbian-German-English dictionary). In Minoru Murata et al. (eds.) *Dictionaries and Language Learning* (ASIALEX 2003 Tokyo Proceedings), 259-265.

## <인용 사전>

- 『능률한영사전』(2006). 서울: 능률교육.
- 『두산동아 Prime 영영한사전』(2002). 서울: 두산동아.
- 『롱맨 영영한사전』(1994/2005). 서울: 금성출판사.
- 서상규 외(2006).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사전』. 서울: 신원프라임.
- 『시사 엘리트 영영한사전』(2001). 서울: YBM 시사영어사.
- 『옥스퍼드 워드파워 영영한사전』(2005). 서울: 교학사.
- 『옥스포드 영한사전』(정영국·조미옥 편역)(2008).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온라인 옥스포드 영어사전』([www.oxfordlanguagedictionaries.com](http://www.oxfordlanguagedictionaries.com)), 옥스포드 대학 출판부.
- 『콜린스 코빌드 영영한사전』(2008). Boston: Thomson-Heinle.
- 『한미대사전』(Martin, S., et al. Eds.)(1968). 서울: 민중서림.
- 『표준국어대사전』(1999). 서울: 두산동아.
- Jones, B.J. & S. Rhie (Eds.)(1995). *NTC's Compact Korean and English Dictionary*. Chicago: NTC Publishing Group.
- Longman Dictionary of Contemporary English*(2003). Harlow: Longman Pearson.
- Oxford Advanced Learner's Dictionary*(2000).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